

농식품 6차산업 현장서 희망찾기

송 지사, 부안서 희망대화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유유마을 양잠 발전방안 논의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
성공사례 '슬지 제빵소' 방문

송하진 도지사는 2018년 도민과 함께 하는 희망대화를 위해 지난 2일 부안군을 찾았다.

이날 김종규 부안군수, 조병서 도의회 부의장, 최훈열 도의원, 오세웅 부안군 의장, 방문지 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송 지사는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유마을을 찾아 전시 판매장을 관람하고 주민들과의 양잠농업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유유마을의 양잠농업은 6차 산업화의 성공 모델로서 사립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집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라져 가는 양잠 농업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으로 이끌어 낸 마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전북도가 가진 전통농업과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전북 40여개의 농생명 R&D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농생명 혁신밸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유마을은 지난해 12월, 오디누에농업에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단화된 지역으로 누에타운, 참뽕 연구소,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일 부안에서 '2018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펼친 가운데 김종규 부안군수 등과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잠사곤충연구소 등 연구시설 및 체험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주민협의회의 전통양잠농업유지 및 시설복원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 받은 바 있다.

이어, 송하진 지사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의 성공사례인 '슬지 제빵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슬지 제빵소는 1999년 10평 남짓 작

은 전방가게로 시작했지만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지역특화 전략작목인 뽕과 오디를 이용해 오색전뽕, 발효소금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하면서 부안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가족기업이다.

송 지사는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농식품가공연구회가 지역특화 전략작목과 연계해 직관장을 만들고, 농가 레스토랑과 체험가공시설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북도에서도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과 판로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부안=이옥수 기자

문 대통령,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주열(66·사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두 번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총재를 차기 한은 총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10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총재는 4년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둔 이날 연임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나라들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오래 재임하면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문제가 심화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통화신용 정책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를 찾기 위해 20명가량을 후보군에 올렸고 최종 3~4명까지 압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 대신 현직 한국은행 총재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모두 훌륭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방향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직후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재 연임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명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쁨보다 책임의 막중함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전주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I·II)과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 형성 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 I 76명, 희망키움통장 II 344명, 내일키움통장 33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I 과 내일키움통장은 오는 9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연 9회 분할 모집), 희망키움통장 I 은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또 희망키움통장 II 1차 모집(연 4회 분할 모집)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I 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 금액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3인 가구 기준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희망키움통장 I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정부 지원금액을 포함해 평균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3년간 평균 1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기존 수급자분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목돈 마련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며 "올해도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관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정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문서류를 손상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단 안전의 컨트론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우리가족건강을 책임지는 붉은 기운!

임실엔 토마토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아이들도 잘 먹는 임실 토마토
한번 먹어보면 또 찾게 되는 바로 그 맛

임실엔 딸기

색감과 식감, 달콤한 향기까지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오감만족 임실딸기

www.imsilin.kr